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상향

~ 긴급사태선언 해제로 사람의 움직임이 서서히 활발해져 ~

(조사대상 2만 3,703사, 유효회답 1만 1,261사, 회답율 47.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1년 3월의 경기 DI는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2.2포인트)된 38.0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로 경제가 서서히 활발해져 2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완만히 상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전 10개 업계, 51개 업종 중 47개 업종이 플러스. 반도체 관련 및 자동차 관련 등 『제조』 『도매』 를 중심으로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한편 석유제품 및 강재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제조』 『소매』 『운수·창고』 등 폭넓은 업종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토카이』 등 전 10개 지역이 2개월 연속 모두 상향하였다. 긴급사태선언이 수도권 1도(都) 3현(県)에서 해제되었다. 지역의 주요 제조업이 개선된 한편 IT관련 및 식품관계가 견조하였다. 또한 전 10개 지역, 45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전년동월을 상회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모두 2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다.

< 2021년 3월의 동향 : 상향 >

2021년 3월의 경기 DI는 2개월 연속 플러스(2.2포인트)된 38.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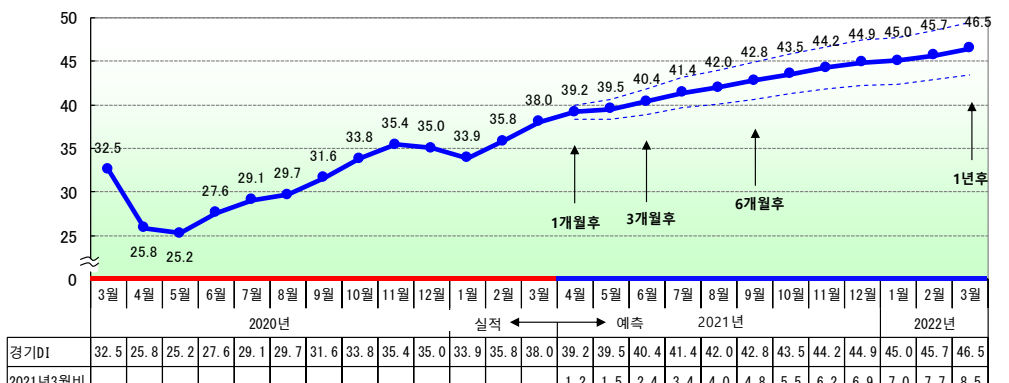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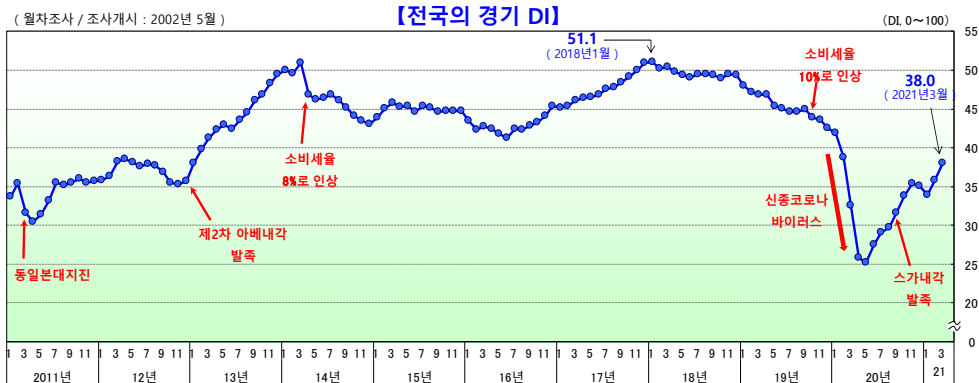
3월의 국내경기는 21일 긴급사태선언이 모든 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사람의 움직임이 서서히 활발해지는 등의 이유로 상향하였다. 재택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자택 내 소비의 확대경향이 계속된 한편 반도체 관련 및 자동차 관련 등의 수요증가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연료 가격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폭넓은 업종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로 경제가 서서히 활발해져 2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상향 경향 >

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 등도 있어 완만한 상향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택근무의 확대에 의하여 주택 니즈의 고조 및 자택 내 소비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한 수요의 확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외의 레저 관련 및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의 증가, 5G의 본격적인 보급, 세계경제의 회복 등이 기대된다. 한편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조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장기화나 연료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적용으로 인한 활동 자제의 재요청 등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크다.

향후의 경기는 하방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나 완만히 상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